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레일, KTX 개통 18주년 고객 감사 행사



1 한국철도공사 사옥 2, 3 나희승 코레일 사장(왼쪽 두 번째)이 서울역에서 KTX 개통 18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고, 승강장에서 KTX 승객에게 환송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4월 1일 KTX 개통 18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행사를 열었다.

코레일은 서울역을 이용하는 고객 500명에게 기차 모형 기념품을 증정했다. 맞이방에서는 'KTX 개통 18주년 벚꽃 포토존'을 사흘간 운영하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180명을 추첨해 KTX 운임 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역에서 고객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직접 기념품을 전달하고, 승강장에서 부산행 KTX 승객을 배웅하는 환송 행사도 했다.

2004년 4월 1일 개통한 KTX 열차는 18년간 전국 8개 노선에서 8억8천659만 명을 태우고 5억5천465만km를 운행했다.

이는 5천만 국민이 한 사람당 17번 이상 KTX를 탄 셈이며, 4만km인 지구 둘레를 1만3천870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운행한 것이다.

모든 승객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2천262억km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1억5천만km)의 1천500배가 넘는다.

이재훈 코레일 여객계획처장은 “KTX의 18번째 생일을 고객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사은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KTX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 시기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많은 분이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